북한, 평창온다면 어떤 종목 출전할까 ▶3면

현대캐피탈, 삼성화재 꺾고 '1월1일1위' ▶4면

재미로 보는 KBO 최상&최악 시나리오 ▶6면

좋아요 꾸욱! 새 만화 '통' 인기폭발 ▶16면

스포츠동아
2018년 1월 2일 화요일
sportsdonga.com 10판

신년대담 | 우승명장 전북 최강희-KIA 김기태 감독, '크로스오버 토크'

2017년 국내 양대 프로스포츠를 주름잡은 두 명장(名將)이 마침내 만났다.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과 프로야구 KBO리그 정상에 나란히 오른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왼쪽)과 KIA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이 대담을 나눴다. 스포츠 고수의 대담 속에는 리더십과 세상을 헤쳐가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지난달 1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손을 꼭 잡고 엄지를 치켜세운 두 사령탑.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타이거즈 감독 시절 한국시리즈 9회 우승〉

# 최강희 "이젠 KIA시대…김응용 감독 기록 넘었으면"

# 김기태 "전북 특허 '닥공정신', 야구에 적용해 볼 것"

"2년 전이죠? 전화만 하고, 이제야 만났네." "아이고, 영광입니다." "무슨 말씀을…."

명장이 명장을 만났다. 최고의 2017년을 보낸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전북현대 최강희(59) 감독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기태(49) 감독이 더욱 아름다워질 2018시즌을 기약하며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했다.

냉정해야 할 때는 더 없이 냉정하지만 품어주고 끌어안고 당겨주는 21세기형 리더십으로 제자들의 완벽한 퍼포먼스를 이끌어낸 두 사람은 국내 최고의 프로스포츠 지도자로 손꼽히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우승트로피다.

2017시즌은 정말 뜨겁게 빛났다. 같은 모기업(현대기아자동차)을 둔 전북과 KIA는 프로스포츠 양대 산맥인 축구와 야구에서 동반 우승했다. 두 팀이 나란히 별을 가슴에 품은 것은 2009년에 이어 8년 만이자, 통산 2번째다.

두 우승감독의 합동 인터뷰는 상당히 오래 전 기획됐다. 시기가 문제였다. 묘하게 엇갈렸다. 전북이 조기 우승을 확정한 시점에 '만약 KIA가 우승한다면'을 전제로 처음 이야기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29일, 프로야구는 KIA-두산의 한국시리즈가 한창이었다. 이후에도 함께 일정을 맞추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돌고 돌아 드디어 이뤄진 만남이었다.

'한 뿌리 클럽 동반우승'이라는 공통분모 이외에 두 사람 사이에 이렇다할 접점이 딱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물 흐르듯 매끄럽게 진행됐다.

역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이다. 어제의 짜릿한 기억, 오늘의 어려운 준비, 또 내일을 향한 걱정을 주거니 받거니 털어놓다보니 약속한 시간을 훌쩍 넘겼다. 김 감독은 "긴 레이스를 치르다 막히면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숱한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의 영광을 일구신 선배를 종종 찾아뵙겠다"는 말로, 최 감독은 "지금 돌이켜봐도 첫 우승이 가장 힘들었다. 종목은 다르지만 2번째는 좀더 수월해진다. 이미 한 번 천하를 통일했으니 진정한 KIA 왕조가 올 것"이라는 덕담으로 더욱 당당해질 2018시즌을 기약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